

건설현장 외국인 작업자의 위험행동 요인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Risk Behavior of Foreign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최현준*

Choi, Hyun-Jun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일대 2곳의 대형 아파트 현장의 외국인 작업자 165부의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외국인 작업자들의 습관적 행위, 공격성, 상황회피, 심리불안 요인이 위험행동과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가설검증을 통해 습관적 행위, 공격성, 상황회피 및 심리불안 요인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습관적 행위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격성, 상황회피, 심리불안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작업 행동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는 습관적 행위, 공격성, 상황회피 및 심리불안의 상태가 위험작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작업행동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건설현장 작업자의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의 증가 문제는 외국인 작업자 때문이기 보다는 외국인 작업자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각 사업장에 직접 투입된 외국인근로자의 성향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 외국인 작업자, 위험행동, 안전사고 위험지수, 구조방정식

1. 서론

건설업체들은 인력부족과 노무자의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기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 작업자들이 위험작업행동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위험행동 등의 항목을 구분하고 이러한 위험행동이 위험작업과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작업의 개선방향과 교육의 지표로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작업자의 위험행동이 위험작업행동과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위험행동요인으로서 습관적 행위, 공격성, 상황회피 그리고 심리불안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작업 행동 및 안전사고 위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총 9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외국인 작업자의 습관적 행위요인은 위험작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외국인 작업자의 공격성요인은 위험작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외국인 작업자의 상황회피 요인은 위험작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외국인 작업자의 심리불안 요인은 위험작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외국인 작업자의 습관적 행위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외국인 작업자의 공격성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외국인 작업자의 상황회피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외국인 작업자의 심리불안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외국인 작업자의 위험작업 행동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획득된 데이터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잠재변인 안 가설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chj8066@hanmail.net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습관적 행위, 공격성, 상황회피 및 심리불안 요인은 위험작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관적 행위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격성, 상황회피, 심리불안 요인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작업 행동은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는 습관적 행위, 공격성, 상황회피 및 심리불안의 상태가 위험작업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작업행동은 안전사로 발전할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습관적 행위는 직접적인 안전사고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작업자들의 개인적 특성파악이 직접적인 재해 예방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습관적 행위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들의 파악과 관리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건설 작업자의 증가로 인한 재해율의 증가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거나 외국인 작업자 개인의 성향에도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신지섭 (2021) 제조업 위험작업자의 행동 영향요인 분석과 판별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계수 (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테이더솔루션
홍인기 외 (2016) 제조사업장의 안전규정 위반요인에 대한 정성적 연구, 한국안전학회, 31(2), pp.133~14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연구
고용노동부 (2022)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